

2008 아름다운 실천, 그 이후

<2> 전남대 해외봉사 동아리 '휴먼스쿨'

지구촌 재앙 있는 곳에 희망 심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시름을 앓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황과 관계없이 항상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왔다. 전남대 해외봉사 동아리 '휴먼스쿨'이 해마다 구호품을 챙겨 비행기를 타는 이유다.

휴먼스쿨은 지난 2004년 12월 발생한 지진·해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 피해주민을 위한 해외봉사를 떠난 것이 시초다.

물질적 지원으로는 봉사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휴먼스쿨 1기는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7월 스리랑카 남부 마타라 지역에서 3주 동안 봉사활동을 벌였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진·해일 예방교육을 펼치고, 현지 대학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렇게 시작한 휴먼스쿨이 올해 겨울 7기째를 맞았다. 그 동안 이들이 다녀온 곳은 ▲지진 피해를 입었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불황에도 고통받는 이들 위해 구호품 등 직접 준비 4년 전 스리랑카 봉사 시작...7기 회원들 네팔 출국 "나누려 갔다 오리라 더 배워요"... 봉사 즐거움 터득

(2006년 7월) ▲화산·태풍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비콜(2007년 1월) ▲사막화의 피해를 입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2007년 7월) ▲홍수 피해가 잦은 인도 서벵갈(2008년 1월) ▲최빈국인 방글라데시 다카(2008년 7월) 등으로 봉사 참가인원만 65명에 이르고 있다.

휴먼스쿨 7기 9명은 지난 22일부터 2주 일정으로 네팔의 카투만두, 포카라, 나와라시 등으로 떠났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잦은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다. 휴먼스쿨의 봉사

활동이 특별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누군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일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선정에서 구호품 마련까지 모든 것을 회원들이 해결하고 있다. 네팔로 출발한 이들 역시 6개월 전부터 교육, 기획, 행정 파트로 나뉘어 일주일에 최소 2번 모임을 갖고 맡은 일을 해왔다.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돌고, 학교 축제에서 수익사업을 벌였으며, 후



전남대 해외봉사 동아리 '휴먼스쿨' 7기 회원들이 네팔 봉사활동 출발에 앞서 지난 16일 교정에서 포즈를 취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돈, 이우형, 양동욱, 김철민, 이보경, 김보람, 김선숙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의 발도 열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500만원도 큰 힘이 됐다. 전체 예산 1천500만원 중 회원 개인이 봉사를 위해 내는 돈은 1인당 40만~45만원 가량. '아름다운 가게'는 중고의류 250벌을 내놓았고, DJ센터는 필기구를 구호품으로 선뜻 제공했다.

이우형(25·화학공학과 3년) 팀장은 "현지 봉사일정은 2주에 불과하지만, 그 2주를 위해 6개월 동안 이미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들을 위해 발로 뛰며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명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네팔에서 어린이와 주민을 대상으로 홍수와 일기예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수인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 등을 직접 배웠고, 간이정수기도 설치해 주고 있다. 회원들은 소방서를 방문해 응급처치법도 배웠다.

김보람(여·21·불문학과 3년)씨는 "6개월의 준비를 하면서 봉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며 "회원 모두가 '나누려 갔다 오리라 더 배운다'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원침 (7689) 김중두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연행

'5·18 단체' 통합 추진위 출범

상임위원장에 정수만씨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3개 단체는 26일 광주시 서구 삼우동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5·18 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출범식을 갖고 통합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구술사상자회 등 각 단체 소속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월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진위는 "5월 관련단체의 통합은 광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추진위는 또 "5·18정신 계승 사업에서 발생한 많은 현안들을 합리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왜곡, 옛 전남도청 사적지 보존 논란 등을 관련 현안으로 지목했다. 통합은 국가보훈공법단체 탄생을 위한 단계이지만 공법단체 등록 이후에도 각 단체가 지켜 온 특수성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진위는 3개 단체의 대표들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이중 5·18 유족회 정수만 회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추진위는 보훈처와 함께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합을 위한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6일 광주시 서구 삼우동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출범식에서 신경진 통추위 공동위원장(가운데)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대법관 나올까

내년 2월 퇴임 예정 고현철 대법관 후임 오세욱 지법원장·김관재 고법원장 물망

대법원이 내년 2월 퇴임 예정인 고현철 수석 대법관(사시 10회)의 후임 대법관 제청 작업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지역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역 법조계는 지난 6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전체 대법관 14명 중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대법관 탄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26일 광주·전남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사시 18회인 오세욱(54) 광주지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원장의 경우 지난 6월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자리를 놓고 양창수(56·연수원 6기) 대법관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용훈 대법원의 고교 후배이자 지역 법관인데다 고대 출신으로 현 정권과의 교감에도 상당부분 들어맞는 인물이라는 점도 호재다. 법원 안팎에서는 "광주·전남에서는 이상렬 조선대 석좌교수(82) 이후 대법관의 맥이 끊겼다"며 "성향이나 시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오원장은 현 정권이 원하는 요소들 두루 갖춘 인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오원장은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장흥지원장·광주고법 수석부장·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관재(55·사시 17회) 광주고등법원장도 대법관 제청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진 출신인 김원장은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지내면서 각종 전담 재판부 신설과 민원인을 위한 법원행정 구원 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질 줄 모르는 연구 활동으로 '교수 법관'이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는 김원장은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고교(광주일고), 대학(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시 합격 후 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광주지법 부장판



<김관재 원장> <오세욱 원장>

사·광주고법 부장판사·광주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오지법원장과는 고교 선·후배 간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원장 이외에도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구옥서 서울 남부지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이상 사시 18) 등 5~6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중 3~4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1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며 대통령은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무안 오리농장 불 1만8,000마리 소사

26일 정오께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박모(60)씨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내부화장에서 불이 나 오리 1만8천여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불은 부화장 건물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50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화장 유통탱크의 배관을 만지다가 불이 났다"는 관리인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신안 군수 선대위원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박민표)은 박우량 신안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10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박 군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권씨는 군청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아 청탁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씨를 포함해 선거에서 박 군수를 도왔던 주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시베리안 허스키 걸어서 소방소까지

○119구조대가 밤 늦은 시간 주인을 잃고 주택가를 헤매고 있는 개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지만, 개가 예상보다 너무 커 걸어서 소방서까지 이송하는 해프닝을 연출. ○26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초등학교 후문에 '숨어지' 만한 시베리안 허스키가 주인을 잃고 돌아다닌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 ○구조대는 개를 끈으로 묶는 데 성공했지만, 길이가 1m 30cm에 이르고 키가 80cm 가까이 돼 구조차량 앞 좌석에 싣지 못하고 결국은 2km 거리나 되는 소방서까지 걸어서 이송하기로 결심. ○결론, 주인을 잃은 시베리안 허스키는 광주 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2주간 사진을 올려 주인을 연락을 기다린 뒤, 못 찾게 되면 원하는 시민에게 팔리게 된다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8분 달돋이 07시 30분 달질 17시 03분 따뜻한 '아랫목' 생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4/7C, 목포: 맑음 -2/6C, 여수: 맑음 -1/8C, 완도: 맑음 -2/8C, 구례: 맑음 -7/7C, 예남: 맑음 -5/8C, 장흥: 맑음 -6/8C, 고흥: 맑음 -5/9C, 순천: 맑음 -7/7C, 영광: 맑음 -6/6C, 진도: 맑음 -2/8C, 전주: 맑음 -6/6C, 남원: 맑음 -8/7C, 옥산: 맑음 1/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28(일) 29(월) 30(화) 31(수) 1/1(목) 2(금) 최저/최고 -1/9 2/7 -2/4 -3/2 -4/2 -3/4

광주·전남 강추위 오늘 오후부터 한풀 꺾여

전국에 몰아친 강추위는 주말인 27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고, 휴일인 28일에는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휴일인 28일에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7~10도가 되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녀들에 집 내주고 혼자 살던 60대 추락사

자녀들에게 집을 내주고 단칸방에서 홀로 살던 60대 아버지가 계단에서 추락사했다. 25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A(60)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김모(3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 등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2년 전 30m 가량의 방 2칸짜

리 임대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다가 "네 식구가 함께 지내게엔 비좁다"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방을 내주고 근처 일반주택 2층에 작은 단칸방을 얻어 잠자리를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과 발견 당시 상황 등으로 미뤄 A씨가 단칸방이 있는 2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약 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